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① 선법원류



▶ 선학 전공자로 동국대 선학과 박사를 취득하고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불전 번역학과 교수로 있다. 김 교수의 이번 연재는 한국에서 전개된 선종사의 전개에 따른 한국선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선의 역할과 성격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법랑, 한국에 禪을 전하다

1. 한국선의 시대구분

한국의 선종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선 통시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왕조의 형성과 소멸에 따라서 선종사의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이에 속한다. 가령 한기두는 〈한국선사상연구〉에서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초기선은 신라시대의 산문선(山門禪), 중기선은 고려시대의 선교화회선(禪敎和會禪), 후기선은 조선시대의 조사선(祖師禪)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경우는 한국선종사의 종합적인 면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주제에 따라 전개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종단본으로 펴낸 〈조계종사〉는 크게 〈고 · 중세편〉 및 〈근 · 현대편〉으로 구분하였다. 〈고 · 중세편〉에서는 한국불교의 초전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어서 19세기 후반까지 걸쳐서 불교의 수용과 발전, 선의 전래와 조계종의 성립, 조계종의 발전과 사상적 특징, 조계종의 시련과 극복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근 · 현대편〉에서는 19세기 후반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현대까지 걸쳐 근대교단의 태동, 민족불교의 시련과 극복, 불교의 자주화와 교단개혁,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과 발전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종단본에서는 조계종사를 조계종의 교단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보다 널리 한국불교의 형성부터 삼국시대의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비롯하여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대부분의 불교사건을 조계종사의 범주 가운데 아우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기타 시대구분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에서는 필자가 〈인물한국선종사〉에서 제시했던 네 단계에 근거하여 한국선법의 원류, 태동, 발전, 계승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선법의 원류라는 시대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최초로 한국에 전래된 선법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태동의 시대설정에 대해서는 중국선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나말여초의 9세기 중반부터 10세기 중반에 걸쳐 동시대에 중국의 선종오가와 별도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던 구산문 및 구산문에 속하지 않는 몇몇 교단의 전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발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선종의 전개에 따른 한국선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중국 선종오가의 수입과 발전 및 새로운 수행법의 도입과 그 영향에 따른 전개를 살펴본다. 계승의 시대에 대해서는 한국선법의 초기부터 전승되어 왔던 선과 교학의 유동적인 관계를 비롯하여 선종의 입장에서 경전과 선어록에 대한 이해의 관점 그리고 선리의 논쟁에 대한 한국선의 특성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한국선에 대한 이해의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한국선의 역사를 구별함으로써 선법의 정체성에 대한 구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한국불교의 전체에 대한 수많은 교단의 통폐합에 따라 종파 각각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획일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한 소위 한국불교의 성격을 소위 통불교라고 명명하고 그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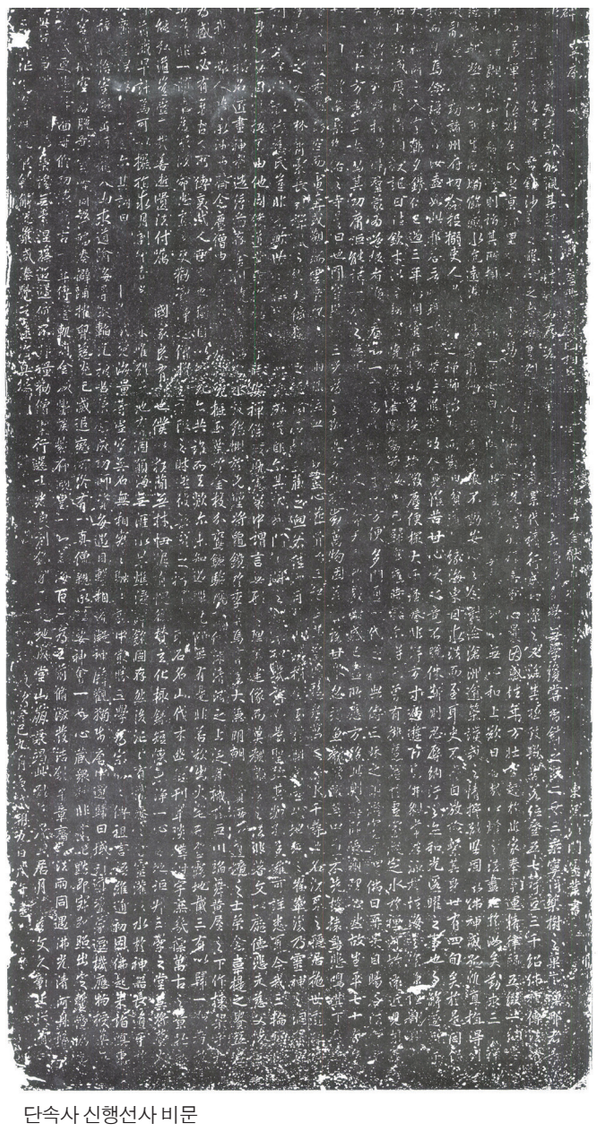
동산법문계승, 신라에 전승
7세기서 8세기 전반에 활동
조계 남종 선법 도의국사의
조계종 역사와 확연히 구분

서 한국에서 전개된 천육백 년에 걸쳐 전승되어 왔던 다양하고 오랜 불교의 역사를 교학과 신앙과 사상과 교단을 망라하여 원융적이고 종합적인 불교를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한국불교가 담보하고 있는 교학과 수행과 신앙과 문화의 측면에서 보여주었던 다채로운 특성이 일괄적인 범주 속에 희석되어버렸기 때문이다.

2. 한국선의 원류

선(禪)이라는 용어는 범어의 태연나(馱演那, dhyāna), 그리고 팔리어의 지아나(持阿那, jhāna)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팔리어 지아나(持阿那)를 달리 선나(禪那)라고도 음사하였는데, 후에 전승되면서 선(禪)이라는 한 글자만 남게 되었다. 선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구마라집은 사유수(思惟修)라고 의역하였고, 현장은 정려(靜慮)라고 의역하였다. 이들 말에는 공통적으로 분명히 사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선은 사유하는 행위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 발생은 붓다가 깨침의 방식으로 활용한 것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선의 원류는 불교의 발생과 함께 출현하였다. 인도불교의 역사에서 선은 선정(禪定)이라는 의미로서 불교의 학과 내지 교단을 망라하여 모든 측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계승되어가면서 선은 인도불교의 경우와 사뭇 다른 기능으로 출현하였다. 6세기 초에 보리달마(菩提達磨)가 중국에 도래하면서 시작된 중국선종의 역사에서 선은 좌선(坐禪)의 의미로 부각되면서 단순한 사유의 범주를 초월하여 좌선수행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단 소위 좌선종 곧 선종(禪宗)으로 출현하였다. 따라서 좌선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유한다는 좌선수행의 행위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조계혜능(曹溪慧能)의 시대에는 보편적인 선수행과 깨침을 아우르는 수증관(修證觀)의 전반적인 의미로 확대되었다.



단속사 신행선사 비문

그러나 이와 같은 선법의 시작은 중국 불교의 경우에도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백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의 경우에도 불교의 전래보다 사백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선법의 전래가 가능하였다. 그 까닭은 선법의 경우에 붓다의 깨침인 정법안장(正法眼藏)의 계승에 대하여 철저하게 전법조사와 그 제자를 통해서 전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불교에서는 불교가 발생한 국가라는 점에서 선과 불교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었지만 중국 내지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크게 달랐다. 중국불교에서는 보리달마라는 인물을 중국선종의 초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달마 이전에 형성된 다양한 선법의 전통은 부정되는데, 한국불교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4세기 후반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되었고, 7세기 무렵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삼국에서 불교의 신앙 및 교학 내지 선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선의 역사에서도 정법안장을 전승한 조사와 그 제자라는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때문에 한국선은 8세기 전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법랑(法朗) 조사가 처음으로 중국선종의 제4조 대의도신(大醫道信) 및 제5조 대만홍인(大滿弘忍)의 선풍을 일컫는 동산법문(東山法門)을 계승하여 신라에 전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8세기 전반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선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천이백오십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곧 한국인으로서 선법을 전래한 최초의 인물이 법랑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한국선의 역사가 바로 조계종의 역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할 수 없을지라도 보다 엄밀하게 그 시작을 논하는 경우에는 9세기 중반에 조계의 남종선법을 전승한 도의국사로부터 비롯되는 조계종의 역사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법랑은 그 생몰연대도 분명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입당해서 쌍봉을 중심으로 선종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명실상부하게 교단을 이룸으로써 집단생활을 영위하며 동산법문의 시초를 전개하였던 도신(580~651)의 오백 대중 가운데서 정법안장을 계승하여 신라에 전승하였다.

그의 제자 신행(神行, 信行, 704~779)의 활동에 근거하여 전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법랑의 생몰연대는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이 찬술한 도헌국사(道憲國師)의 비문에는 쌍봉의 자(子)는 법랑 法朗이고 손(孫)은 신행(信行)이며, 증손(曾孫)은 준범(遵範)이고, 현손(玄孫)은 혜은(惠隱)이며, 말손(末孫)은 도헌(道憲)이라는 기록이 있다. 법랑은 신라 선덕왕(善德王) 시대에 입당하여 쌍봉도신의 선법을 얻었다고 하는데, 귀국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김헌정(金憲貞)이 찬술한 것으로 지리산 단속사(斷俗寺)에 세운 신행선사의 비문에 의하면, 법랑의 제자 신행은 경주 출신으로 속성은 김(金)씨이다. 단속사에 주석하면서 30세 무렵에 운정율사(運精律師)로부터 계율을 공부하였고, 좌선수행에 정진하고 있던 중에 법랑이 귀국했다는 소문을 듣고 호거산(虎踞山)으로 찾아갔다. 법랑으로부터 깨침을 인가받고 3년 동안 머물렀다. 법랑이 입적한 이후에 입당하여 대조선사 보적(大照禪師 普寂, 651~739) 및 그의 제자인 지공(志公)에게 3년 동안 참문하여 깨침을 인가받았다. 스승의 권유를 받고 귀국하여 혜공왕(765~780) 시대에 지리산에서 교화를 펼치다가 76세로 779년에 입적하였다.

〈석씨계고략〉 권3에 의하면 보적은 수도에 있는 당흥사(唐興寺)에 주석하였다. 중국 선종의 제5조 홍인의 법을 계승한 대통신수(606~706)의 제자로서 신수를 계승하여 국사를 지냈다. 일찍이 측천무후에게 추천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종황제는 신수의 문하를 거느리게 하였고, 현종은 칙명으로 도성에 주석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신행이 참문했던 당시 중국선종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신수-보적-지공(志空)의 법계가 정통으로 간주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점은 한국선의 최초 전래자인 법랑의 선법을 정통으로 계승한 신행의 선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행이 전승한 법랑의 선풍은 중국선종으로 보면 제4조 도신의 정통적인 선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행이 다시 홍인과 신수의 법을 이은 대조선사 및 그의 제자 지공으로부터 전승한 선법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중국선종의 정통으로서 의심할 나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종이 정통으로 확립된 사건은 755년부터 762년에 걸친 안록산(安祿山, 703~759)과 사사명(史思明, ?~761)에 의한 반란이었다. 곧 안사의 난을 평정하기 위한 전쟁비용으로 신회(神會)는 향수전(香水錢) 곧 출가승의 납세금을 헌납하였는데 그 공덕으로 인하여 입내공양(入內供養)을 받기 위하여 도읍지로 돌아왔던 757년 10월 23일에 숙종의 칙명에 의하여 그때까지 정통으로 계승되었던 북종선을 대신하여 바야흐로 남종선이 정통으로 부각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행이 신라에 전승한 선법의 성격은 중국선종의 정통에 해당하는 도신과 홍인의 선법을 일컫는 동산법문의 충실한 계승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시에 아직은 소위 남종의 선법이 정통으로 부각되기 이전의 북종의 정통선법의 계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신라에 최초로 전승된 선법의 성격이 정통이었음을 분명하게 그 명분을 확보하는 계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경우

사부대중일동

- 승려노후수행마을
- 대한불교조계종선운사복지재단
-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 고창군노인복지관 / 고창군노인복지센터
- 고창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고창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시니어클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2021 謹賀新年 신축년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태공월주
회주 금산도영
주지 월강일원
부주지 시산원혜

총무 화평
기획 광진
사회 제환
교무 응묵

재무 여찬
호법 덕림
포교 석초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